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8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역대하 · 마태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믿음의 능력

●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13장 ~ 마태복음 16장

14 1과 믿음의 도전

22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17장 ~ 마태복음 22장

30 2과 신자의 삶

38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23장 ~ 마태복음 28장

46 3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가?

54 매일성경묵상 역대상 25장 ~ 역대하 1장

62 4과 하나님께 드리라

70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2장 ~ 역대하 6장

『중언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언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8 August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마태복음 13장
5	6 마태복음 17장	7 마태복음 18장	8 마태복음 19장
12	13 마태복음 23장	14 마태복음 24장	15 마태복음 25장
19	20 역대상 25장	21 역대상 26장	22 역대상 27장
	제3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26 제4차 학습세례식	27 역대하 2장	28 역대하 3장	29 역대하 4장

September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마태복음 14장

3 마태복음 15장

4 마태복음 16장

9 마태복음 20장

10 마태복음 21장

11 마태복음 22장

16 마태복음 26장

17 마태복음 27장

18 마태복음 28장

23 역대상 28장

24 역대상 29장

25 역대하 1장

30 역대하 5장

31 역대하 6장

교회 주요 일정

8월 20일~22일

제3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8월 26일

제4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 ❿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⓫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능력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속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2012년 8월을 맞이하며 위일목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찬송가 235장

묵상노트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1~23절), 가라지의 비유(24~30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31~35절),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44~46절), 그리고 그물의 비유(47~52절)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천국의 실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며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놀라움 그 자체이고, 기쁨과 환희 그 자체이며, 부요함과 풍성함의 극치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풍성함의 극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천국의 실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11절).

천국은 실재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은 존재하며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처럼, 또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현실의 눈으로 보면 자극히 작고 초라하며 형편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그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생명력은 놀라우리만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는 비밀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그 나라의 완성과 승리는 분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세상의 왕국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나라,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두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겨자씨(31절) : 팔레스틴의 계네사렛 평원에 번식하는 높이 약 45m 정도의 1년생 나무의 씨로서 다른 씨앗보다 무척 작다. 따라서 ‘아주 작은’이라는 뜻의 비유로 사용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 13:44)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Mt. 13:44)

기도제목

① 두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늘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드신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아들

2

목요일

복음서의 첫 시작 이끌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1~12절)과 오병이어의 기적(13~21절),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22~33절)까지 몇 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어 그에게 병 고침을 받고자 줄지어 달려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35절). 심지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놀라운 진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36절).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분(14절)이시기도 하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신 분(13~21절)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물 위를 유령처럼 걸으신 분(25절)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단지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33절)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모든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찬송가 537장

묵상노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33)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Mt. 14:33)

• **축사(19절)** : 일반적으로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성경에서는 감사와 찬미 또는 감사기도를 의미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죽은 전통

마태복음 15장
찬송가 86장

묵상노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아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2절). 이 질문은 ‘전통’이라는 당시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양 으스스대며 거들먹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죽은 전통에 매여서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8~9절). 오늘날에도 참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 신자인 척 행세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쨌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만 앞세우며, 종교적 열심만 있지 그 열심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생활을 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22절) 외치며 나아갔던 가나안의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소망임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Mt. 15:8)

• **전통(2절)**: 헬라어 ‘파라도시스’로서, 심계명을 위시한 율법과는 달리 그 율법을 해석, 보완해 놓은 조상들의 관습과 양식 등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교유한 정산이 사라진 메마른 전통만을 내세우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다.

기도제목

- ①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대의 표적

4

토요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1절)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3~4절). 어느 시대에나 신앙에 대한 표적, 즉 기적을 보고자 열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기적적이고 신비로우며 영험한 어떤 것을 경험하고자 함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반적인 종교적 경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기적이 없음을 예수께서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고백(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삼 일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십자가가 바로 시대의 표적이며 신앙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곧 신자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생활입니다(24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분이 가신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종교적 신비와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감정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t. 16:16)

마태복음 16장
찬송가 303장

묵상노트

• 시대(3절) : 단순한 시간의 흐름인 ‘크로노스’가 아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때,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인 ‘카이로스’를 말한다.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

말씀과 기도가 주는

쉽!

”

7월 12일 - 코 너희에게(가)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 15:32)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단기선교를 가거나 고향집, 산과 바다 등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 12:2). 최고의 휴가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영적 전투에는 휴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가 주는 쉼을 누리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로 15:3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5 주일

6 월요일

☐ 마태복음 17장

7 화요일

☐ 마태복음 18장

8 수요일

☐ 마태복음 19장

9 목요일

☐ 마태복음 20장

10 금요일

☐ 마태복음 21장

11 토요일

☐ 마태복음 22장

1

믿음의 도전

Challenge Of Faith

| 초점 |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 찬송 |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 본문 | 마태복음 14:22~36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²³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²⁴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²⁵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²⁶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²⁷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²⁸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²⁹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³⁰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³¹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³²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³³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³⁴그들이 건너가 계넢 사렛 땅에 이르니 ³⁵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³⁶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5,000명 이상을 먹이신 직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4시쯤인 매우 이른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랐으며,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유령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마 14:28).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의 초청

믿음의 초청이 베드로에게 “오라”(마 14:29)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1,900번이 넘는 하나님의 초청들이 가득합니다.

※ 예수님의 초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마 11:28, 19:14)?

요 7:37~38

요 6:37

주님의 초청은 확실하지만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영접하며,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절반조차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도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모험

믿음의 모험은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마 14:29

믿음의 원천

믿음의 원천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마 14:31

베드로는 자신의 환경을 주시했고, 세상에 기초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석 때문에 그는 결국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석함으로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 나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적인 모든 분석이 자신이 처한 곤경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을 때 예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의 짧고도 격양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뻗어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약하고 궁핍하더라도 안전합니다.

요일 4:18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 주시며, 삶의 모든 풍파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천국으로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때가 되면 참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과 완전한 신뢰를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입니다. 배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히 11:1~2 _____

약 2:2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 ②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우리의 가정, 구역(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찬송가 286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1절). 그리고 그 산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광경(2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을 가리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5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다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이 되셨습니다(빌 2:7).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낮아지심)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 주셨고 또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시며(14~20절) 이 세상의 법과 환경,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자신을 부합시키셨습니다(24~27절). 이 모든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최후에 그는 자신의 죽음 당함,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남을 가르쳐주셨습니다(22~23절).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변형되사(2절) : '메타'(변하다)와 '모르페'(형상)의 합성어로, 외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속성, 마음 등 모든 것이 천상의 형체에 어울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Mt. 17:20)

기도제목

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천국에서 가장 큰 자

7

화요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절). 그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답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3절). 또한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4절).

예수께서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즉 작은 자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작은 자’로 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 넓은 것, 많은 것, 높은 것, 위대한 것, 자랑스러운 것 등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 좁은 것, 부족한 것, 낮은 것, 초라한 것, 부끄러운 것 등은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틀림없이 인간들은 자신이 큰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큰 자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동경하며 선호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작은 자이고 낮추는 자이며 부끄러운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어 많은 양의 비유(10~14절), 형제의 범죄함(15~20절), 그리고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21~35절)를 통해 바로 인간의 죄인 됨과 작은 자 됨을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는 죄인 된 자, 곧 작은 자만이 큰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작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천송가 565장

묵상노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Mt. 18:4)

• 실족하게 하면(6절) : 할 정이나 울두에 걸려 넘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찬송가 294장

묵상노트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행차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11절). 아쉽게도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생으로 여기며 칭송했던(46절) 그들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습니다(마 27:25~26).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분명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지 좌절과 실패가 아닌 인간 구원의 유일한 승리이고 영광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분명 그 단어의 뜻, 즉 “구원하소서!”에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인간의 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 만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변해버리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무리들이 이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알든 모르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찬양할 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 21:9)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Mt. 21:9)

• 호산나(9절): ‘이제 구원하소서’란 뜻으로 본래 예배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기도제목

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가장 큰 계명

11

토요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36절).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37~40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미건조한 교리에 아무런 감정 없이 고백하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에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린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전부가 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주님과 신자와의 사랑의 교제를 드러내기 위해 ‘혼인’에 관한 비유를 종종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의 비유(1~14절)가 등장합니다. 또한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30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적 연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Mt. 22:37)

마태복음 22장
찬송가 499장

묵상노트

• 가이사(21절): 본래 유명한 정치가요, 웅변가인 율리아스 시이제(B.C. 144~102)의 성(姓)이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혼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聖兵) 후 2:3이 되게 하소서.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2 주일

13 월요일

☐ 마태복음 23장

14 화요일

☐ 마태복음 24장

15 수요일

☐ 마태복음 25장

16 목요일

☐ 마태복음 26장

17 금요일

☐ 마태복음 27장

18 토요일

☐ 마태복음 28장

2

신자의 삶

A Believer's Life

| 초점 |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 찬송 |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 본문 | 시편 23:1~6

¹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²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³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
 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⁴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
 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⁵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
 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이다 ⁶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
 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신자의 삶 속에는 찬양과 영원한 행복도 발견됨을 시편 23편은 설명해 줍니다. 시편 22편과 24편 사이에 이 시편 23편을 둔 것은 완벽한 배치입니다.

※ 시편 22편과 24편의 특징을 성구와 함께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시편 22편	시편 24편

십자가와 천국 사이에 신자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22편이 상징하는 갈보리산과 24편이 상징하는 시온산 사이에는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과 설 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이기애 모든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본다

시편 23편은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그립니다.

시 23:2~5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성경 말씀을, “של만한 물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요 7:37~39

※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식탁은 준비되었고, 우리의 머리는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우리의 잔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영원을 준비한다

시편 23편은 신자들이 영원을 준비하게 합니다.

시 23:6

다윗은 자신을 하루치기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자비하심을 받는 자로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쏟아집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십니까?

※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측량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이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하지만, 이 천국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한다면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할 것입니다.

딤후 4:18

만드시 시편 23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돌보시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덧없고 짧다는 것과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도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내 돌보아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요 3:16 _____

갈 2:2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소서.
- ② 구원과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찬송가 274장

묵상노트

예수님의 거침없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일곱 화(禍)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신 대상과 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이었습니다(13~29절). 또한 영적으로 눈 먼 인도자였습니다(16절). 외식이란 결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술수와 거짓을 의미하며, 교만은 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외식과 교만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교묘한 죄의 영향력 하에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더럽고 강력한 외식과 교만의 죄악 된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외식과 교만의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화 있을진저'의 대상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외식과 교만의 끈적거리는 죄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설교 앞에 우리 자신을 직시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받아들임이 아닌, 나 자신이 이 말씀의 대상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란 존재는 죄 짓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설교 앞에 우리는 오직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삶과 안식이 있습니다.

• 외식(13절) : '속이다', '연극하다', '꾸미다'의 뜻을 지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양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For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Mt. 23:12)

기도제목

- ① 주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세상 끝날의 징조

14

화요일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3절).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사람의 미혹(4절)과 환난과 재난(6~9절), 그리고 불법(12절) 등이 횡행할 것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13절)임을 드러내시면서 세상 끝의 징조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30~31절).

세상의 끝이 언제부터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현재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한 기간임을 직시하고 아는 것입니다. 역사상 숭한 이단들이 있어 왔고, 또한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상치 않은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떠들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기상의 변화, 엄청난 해일과 지진 등이 전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만큼 불법과 타락이 전 영역에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던 때가 과연 언제였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오늘날 심각한 죄악들이 도처에 만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일들이 현재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절대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 후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영광된 나라가 분명히 실제적으로 드러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때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찬송가 180장

묵상노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마 24:32)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Mt. 24:32)

• 골방(26절) : 헬라어 ‘타메이온’으로, 무기를 숨긴 창고 혹은 회당의 교실 등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장소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모하고 고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 ② 천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영로원, 참양총천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찬송가 535장

묵상노트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1~13절), 달란트 비유(14~30절), 그리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비유(31~46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나타난 중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신앙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준비 과정을 통해 그 날을 위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으며(1~13절),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타국에 간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14~30절).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임금의 심판이 있기 전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긴 오른편과 그렇게 하지 않은 왼편의 구분을 통해 천국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31~46절).

동일하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의 실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때가 되면 어떤 심판과 결과가 있을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그 심판과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신자의 수고와 애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재합니다. 그곳의 삶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른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영벌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함입은 자는 분명 영생의 구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46절).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나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비추어 보고 적용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 **처녀(1절)** : 헬라어 '파르테노스'로서,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킨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와 신랑과 그의 일행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영접하여 혼인 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2~13)

But he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Mt. 25:12~13)

기도제목

① 날마다 깨어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만을 붙드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십자가의 길

16

목요일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3~4절). 예수님을 삼 년 동안 따라 다녔던 제자는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기로 결심했고(14~16절),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모의와 그 제자의 배반을 모른 채 하시듯 열두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17~30절).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5절)라고 호언장담을 하나, 그의 태도와 음성은 후에 있을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암시인 양 깨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홀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외로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처절한 몸부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36~46절). 결국 주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 미리 군호를 짠 무리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47~56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점차로 그분의 어깨에 메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만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 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으며, 외로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Mt. 26:28)

마태복음 26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 겟세마네(36절) :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장소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지닌 곳이다. 감람나무가 울창한 곳으로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셨던 장소였다. 또한 기룻 유다에 의해 체포되신 곳이 기도 하다.

기도노트

기도제독

① 세상의 찬란한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신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찬송가 146장

묵상노트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11~26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성난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죄수 바라바의 놓임(26절)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술책(20절), 그리고 민란에 가까운 백성들의 봉기(24절) 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부채질하였습니다. 삼 년 동안 따라다녔던 열두 명의 제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를 향해 바웃고 희롱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40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45절). 하늘도 빛을 잃고 무언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어둠 그 자체를 뿔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숨을 고르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음성이 터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절). 절규에 가까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참 인간이신 성자 하나님의 마지막 고백이며 고통에 찬 한 인간의 고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성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십자가(22절) :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 기구. 고대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기둥을 사용했으나 점차 T자형과 십자가형, 그리고 X자형으로 변천되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자주 받은 죄악을 범한 자의 형구였으나 예수와 십자가에서 대속 시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2:1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t. 27:46)

기도제목

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1~3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4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음질하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8절).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그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습니다(11~15절). 반면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서로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8~10절).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열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17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다시 사심이며 실제적 사건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근거이고 진제이며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고전 15:14).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5:17~19). 그러나 우리 주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뒤로 한 채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히 12:2)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히 7:25). 주님의 부활은 주께서 친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20절).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땅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t. 28:20)

마태복음 28장
찬송가 162장

묵상노트

• **안식 후 첫날(1절)** :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의 의미, 현재의 주일일 요일을 가리킨다.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로서 주일성수의 기원이기도 하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에 역사적으로 공교회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여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 그 길로 ”

그리스도의 일꾼이 걷는 길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지럽고
지치며 싫증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단순히 듣고 순종할 때
그 길은 기쁨과 감사로 넘칠 것이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9 주일

20 월요일

☐ 역대상 25장

21 화요일

☐ 역대상 26장

22 수요일

☐ 역대상 27장

23 목요일

☐ 역대상 28장

24 금요일

☐ 역대상 29장

25 토요일

☐ 역대상 1장

3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가?

God's Power Is Not Enough?

| 초점 |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 찬송 |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본문 | 이사야 59:1~2

① 여호와와 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②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10:4

오늘날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에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지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 59:1

위대한 창조주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기적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덕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느낀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감정은 항상 변하며, 종종 여러분을 속입니다.

※ 이사야 50:2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혹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사 50:10~11).

귀머거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사 59:1 /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_____
아니라

분명 주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실 만큼 권능이 충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원하실 만큼 충분히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의 귀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 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 6:5~6 _____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며, 여러분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며 지켜보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죄가 갈라놓았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 59:2 _____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욕망도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거짓말쟁이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로 구부러진 길을 선택했습니다.

※ 어떤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잃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 1:15~18 _____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떤 공로나 업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의인처럼 살아가려는 외식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이 악함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지 마십시오.

오늘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을 비취 구원하시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더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도록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을 여러분이 부흥하는 날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고전 4:20 _____

딤후 1: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원들이 십자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노래

역대상 25장
찬송가 453장

묵상노트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24반열로 구분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찬송 전문가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신령한 노래를 위하여 24반열마다 12명씩 총 288명을 선별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연주하는 직무를 맡겼습니다(1~7절). 24반열로 된 성전 찬양대는 마치 군대 조직처럼 질서 정연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일 년에 두 주 이상 번갈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9~3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찬송은 인간 본연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듯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 선견자(5절) : 히브리어로 '이상 또는 환상을 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앞 일을 분별하고 예언하는 자, 즉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자이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대상 25:3)

As for Jeduthun, from his sons: Gedaliah, Zeri, Jeshaiiah, Shimei, Hashabiah and Mattithiah, six in a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 Jeduthun, who prophesied, using the harp in thanking and praising the LORD. (1 Chr. 25: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제비 뽑힌 곳에서

21

화요일

성전의 사방 문을 지키는 수비대에 많은 인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성전 문지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비를 뽑아 성전의 동서남북에 날마다 24명씩 세웠는데, 성전의 문지기로 뽑힌 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매우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뽑힌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네 방향에 따라 성전수비를 맡았는데, 이 자리도 24반열로 되어 있어 제사장이나 찬양대만큼 중요한 직무였음을 보여줍니다(1~19절). 다윗은 성전의 성물을 보관하는 곳간을 레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20~28절). 레위인들 중에 이스할과 헤브론 가문은 “성전 밖에서의 이스라엘의 일”, 즉 일반 행정직을 맡았습니다(29~32절).

성전에 필요한 것은 건물과 기구들만이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를 맡은 사람들도 있어야 하며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13절에 보면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조금 편한 장소에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제비 뽑힌 곳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이권 다툼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은 봉사자들이 없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힘도 들지 않는 봉사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내 몸이 편하기 위함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
찬송가 440장

묵상노트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대상 26:13)
Lots were cast for each gat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young and old alike.
(1Chr. 26:13)

• 성전 공간(22절) :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모든 봉사가 자기를 부안하고 자기 심자기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 ② 심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가까이 있는 자의 배신

역대상 27장
찬송가 290장

묵상노트

24,000명씩 12반열로 조직된 다윗 왕국의 군대를 이끄는 12명의 반장은 대부분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삼십 용사'들이었습니다(삼하 23장).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신실한 용사들이 이제 각 군대의 대장들이 된 것입니다(2~15절). 다윗은 각 지파에 백성들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 왕의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16~24절). 또한 그는 왕의 공간과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공간, 포도원, 소 떼, 나귀, 양 떼와 같은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각각 세웠습니다(25~31절). 요나단과 여히엘, 아히도벨, 아렉 사람 후새, 여호야다, 아비아달, 요압 등은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32~34절).

그러나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아히도벨은 훗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배반했고, 요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야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삼하 17:23 : 왕상 2:33), 왕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눈물을 주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왕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되지 않고 평안할 때는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들은 곧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믿는 척할 뿐입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왕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왕의 벼(33절) :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과 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다. 기자는 이런 구조를 통하여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벼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던대(대상 27:33~34) Ahithophel was the king's counselor, Hushai the Arkite was the king's friend. Ahithophel was succeeded by Jehoiada son of Benaiah and by Abiathar. Joab was the commander of the royal army. (1Chr. 27:33~34)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주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묵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내 아들 솔로몬아

23

목요일

모든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한 후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을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1~8절).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아버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며(9~10절), 성전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도를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다락과 골방, 속죄소, 그릇의 양식 등 각종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1~19절).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솔로몬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을 확신시킵니다(20~21절).

우리는 “교회에 갔다 왔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갔다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내용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먼저 마음을 열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과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for the LORD searches every heart and understands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s.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reject you forever. (1Chr. 28:9)

• 하나님의 발판(2절) :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언약궤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자녀들에게 믿음의 형식이 아닌, 믿음의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

역대상 29장
찬송가 523장

묵상노트

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1~5절) 아낌 없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은 다윗의 헌신에 신하들도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들을 내놓으며 동참합니다(6~9절). 다윗은 곧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렸을 뿐임을 고백하며, 이처럼 즐거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10~19절). 다윗은 온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하였으며 이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20~30절).

하나님은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과 사독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메시아 직분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으로도, 사독으로도, 위대한 왕들과 고귀한 제사장들과 많은 희생 제물로도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잠들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찬양 받으실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오빌의 금(4절) : 히브리어로는 '금 중의 금'이라는 뜻으로 양질의 정금을 가리킨다. 당시에 이러한 금이 오빌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

이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니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역대상 29:22) They ate and drank with great jo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day. Then they acknowledged Solomon son of David as king a second time, anointing him before the LORD to be ruler and Zadok to be priest. (1 Chr. 29:22)

기도제목

① 날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25

토요일

다윗의 왕위를 건고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트는 세워서 주십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조직을 정비한 후에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 갑니다(1~6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7~10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11~17절).

많은 사람들은 부와 영광을 복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내놓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자신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나쁘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도 결국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마 6:29)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약속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문에 아버지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종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장
찬송가 521장

묵상노트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대하 1:12)

Therefore wisdom and knowledge will be given you. And I will also give you wealth, riches and honor, such as no king who was before you ever had and none after you will have. (2Chr. 1:12)

•백향목(15절): 레바논 산간 지방의 주산물로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수입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종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역이라 마음도 들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며 기뻐하였지만 곧 저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3일째, 오후 사역을 위해 한 마을에 들렀을 때 9살가량의 남자 아이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복음을 잘 듣고 영접기도 또한 잘하였기에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알렸지만 그 아이는 조금 듣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해 준 전도지까지 찢으며 다른 가족이 복음을 듣는 것마저도 방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옆집에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약간 취한 듯한 할머니는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당신의 말만 쏟아 내었습니다.

저희는 낙심하여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전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팀장님의 말씀에 다른 마을 입구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간 첫 번째 집에서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어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그곳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신 8명의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을 모두가 잘 듣고 큰 소리로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마지막엔 “할렐루야! 아멘”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했으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 승리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 계심과 저희를 깨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신 모든 사역에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영남(집사, 10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6 주일

27 월요일

☐ 역대하 2장

28 화요일

☐ 역대하 3장

29 수요일

☐ 역대하 4장

30 목요일

☐ 역대하 5장

31 금요일

☐ 역대하 6장

1 토요일

☐ 역대하 7장

4

하나님께 드리라

Invest In God

| 초점 |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

| 찬송 |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 본문 | 베드로후서 3:10~12

⁽¹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¹¹⁾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¹²⁾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투자에 관한 가장 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후 4:18 _____

마 6:19~20 _____

※ 현재 어떤 일에 나의 시간과 힘을 투자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 4:18~20 _____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여러분은 어디에 최선의 노력과 시간을 쏟기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현명한 투자에 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소유물의 속임

소유물이 사람들을 속여서 타락시킵니다.

벧후 3:10 _____

세상의 소유물들에 대한 사랑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롯은 요단 평야를 바라보며 그곳이 여호와와 동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처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창 13:11).

눅 18:22 _____

눅 18:24~25 _____

※ 누가복음 12:16~21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며 재림을 기대할 때 땅에 속한 것들의 유한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소유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위의 것들에 투자합니다.

소유물의 해체

소유물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벙후 3:10~11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강렬한 열기로 녹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다 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 지구가 해체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시 102:25~27

하늘과 땅은 유한하며 결국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덧없는 여러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물의 분리

소유물이 나뉘는 후에 심판이 옵니다.

벧후 3:12 _____

※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때, 여러분의 소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 6:24 _____

우리의 영적 눈이 탐욕에 의해서 가려졌을 때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제발,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집에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마 6:20 _____

돈이 사람을 유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존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빨리 내버립니다. 돈이 내 심령에 스며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에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착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모두 희생하여 주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오직 자신과 유한한 것들만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와 천국에서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한한 것에 최선의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십시오. 깨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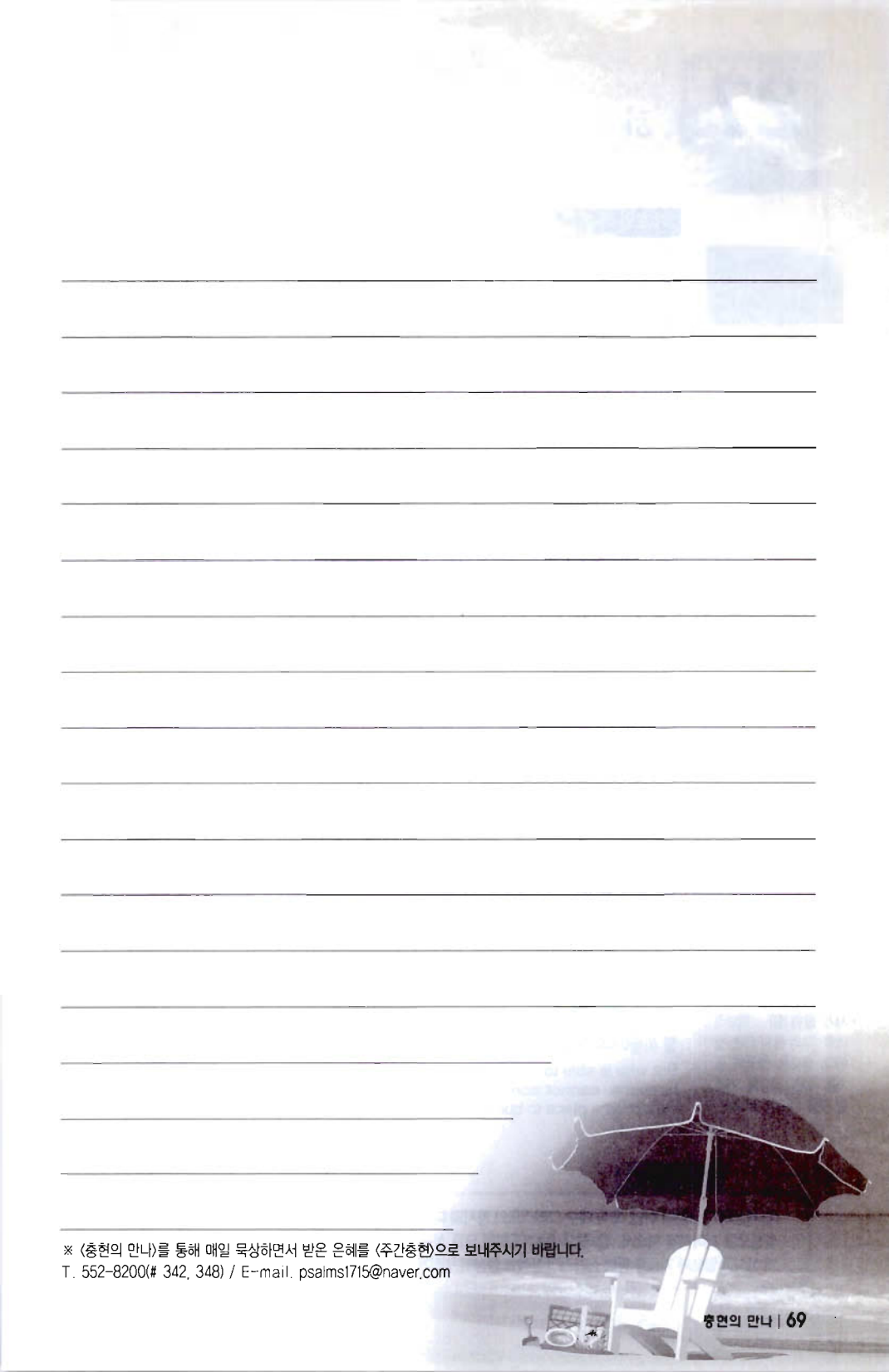
- 여러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겠습니까?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 왔습니까?

요 14:2~3

| 믿음의 기도 |

- 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et against a background illustration of a beach scene. The illustration includes a blue sky with white clouds, a white lounge chair, and a blue umbrella.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ims1715@naver.com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역대하 2장
찬송가 497장

묵상노트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한(1절)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건축 기술이 뛰어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2~10절). 이에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하였던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와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11~16절).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조사하여 70,000명은 짐꾼으로, 80,000명은 벌목꾼으로,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17~18절).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한 복으로 오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자 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16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집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모든 신자를 성전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라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엡 2:21~22).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과 사랑에 감사하며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 자기 왕위(1절) : 히브리어로 ‘그의 통치’라는 뜻이다. 솔로몬 왕국의 통치를 위한 왕궁을 건축할 것을 의도한 것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때름이니이다(대하 2:6)

But who is able to build a temple for him, since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cannot contain him? Who then am I to build a temple for him, except as a place to burn sacrifices before him?(2Chr. 2:6)

기도제목

① 세상의 다스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었으며,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화목제단을 쌓고 용서를 받은 후에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는 곳입니다(1절).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2절). 솔로몬은 순금과 보석으로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3~7절). 또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했습니다(8~14절).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을 세웠는데 성전의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습니다(15~17절).

많은 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17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두 기둥에는 각기 뜻이 담겨 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께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대하 3:17)

He erected the pillars in the front of the temple, one to the south and one to the north. The one to the south he named Jakin and the one to the north Boaz. (2Chr. 3:17)

역대하 3장
찬송가 311장

묵상노트

• 휘장문(14절) : 성막이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천으로서 '휘장'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또 규례대로

역대하 4장
찬송가 449장

묵상노트

놋으로 제단과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놋쇠 황소 열두 마리가 받쳤습니다. 황소의 머리는 밖을 향하고, 엉덩이는 안쪽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각 세 마리씩 놋쇠를 받쳤습니다(1~5절).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왼쪽과 오른쪽에 다섯 개씩 두고 그곳에서 번제물을 씻게 했습니다. 바다도 같은 용도이지만 바다는 오직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6절). 규례대로 금 등잔대 열 개와 상 열 개, 금 대접 백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습니다(7~8절). 후랍은 이방인임에도 솔로몬이 시키는 일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완성했습니다(11~18절). 솔로몬은 하나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특별히 지성소 앞에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꽃과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등을 만들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은 금으로 입혔습니다(19~22절).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7,20절) 만들어졌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2절) : 반구형의 놋쇠 대아로서 성전의 제단과 입구 사이에 위치. 직경 4.5m, 깊이 2.28m로 300배럴 용량의 규모이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대하 4:7)

He made ten gold lampstan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for them and placed them in the temple,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2Chr. 4:7)

기도제목

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30

목요일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 봉헌한 물건들로 성전을 짓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집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1절). 성전이 완성되자 여호와와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 놓고 싶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처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여 환호하며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 들였습니다(2~10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악기를 연주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였을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11~14절).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본래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향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지팡이와 향아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향아리가 없다고 해서 언약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의 상징이었던 지팡이와 향아리가 사라지고, 말씀의 상징인 두 돌판만 남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대하 5:10)

There was nothing in the ark except the two tablets that Moses had placed in it at Horeb, where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after they came out of Egypt. (2Chr. 5:10)

역대하 5장
찬송가 335장

묵상노트

• 여두둔(12절) : 왕의 선견자였으며 동시에 찬양대의 악장으로 있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설 공사 및 양로원, 합양총합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6장
찬송가 190장

묵상노트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 안에 여호와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거하십니다(1~2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3~11절).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도 참되신 왕 앞에서 작은 종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12~13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14~25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로 지상의 성전을 허락하셨음을 강조합니다(26~42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그곳에 여호와와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두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했습니다. 성소에 둔 언약궤에 거룩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볼 뿐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니까?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대하 6:10)

"The LORD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I have succeeded David my father and now I sit on the throne of Israel, just as the LORD promised, and I have built the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2Chr.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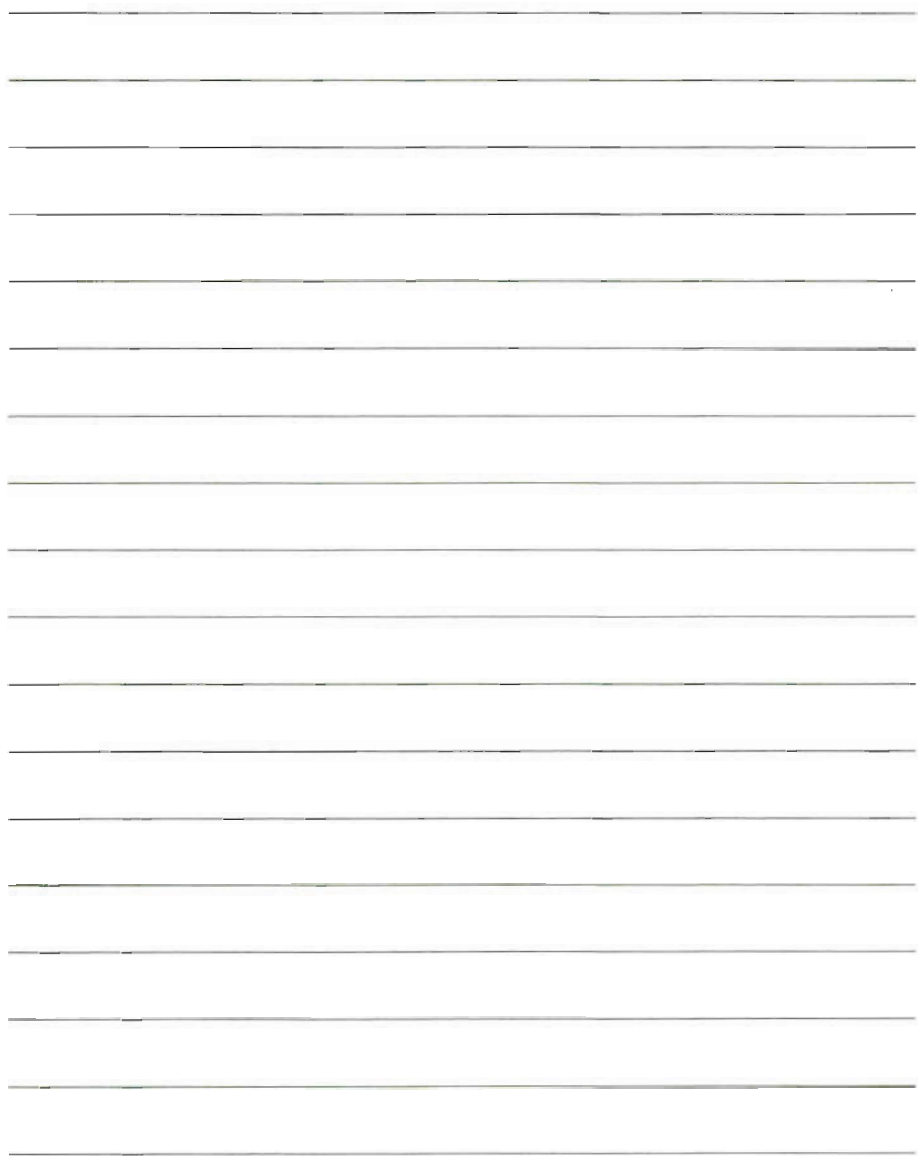
•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30절) : 히브리 원문은 '이 사람의 아들들' 곧 '그 사람의 아들들'로 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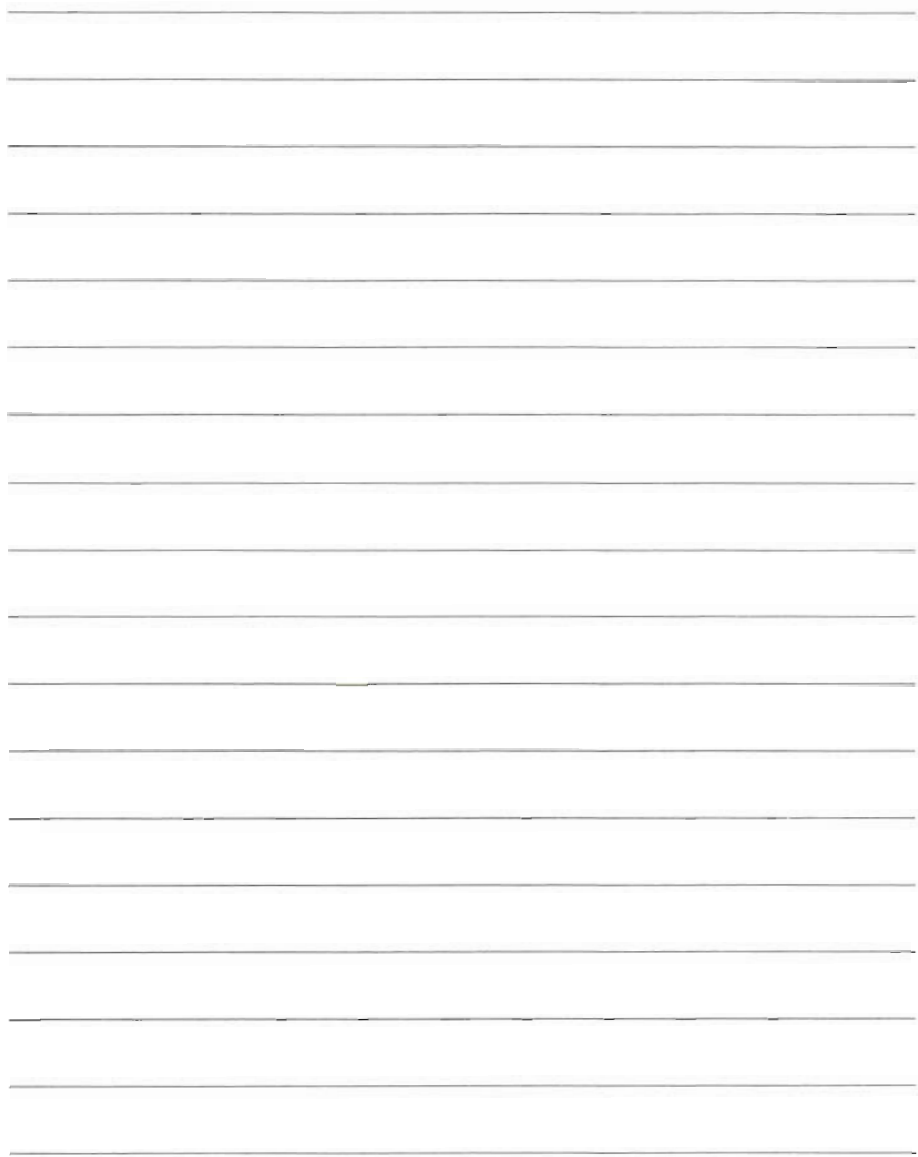
기도제목

- 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8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